

상생의 시장경제를 지키는

브리짓경제

신안군,도초 환상의 정원 '모범도시숲' 가로수 부문 인증

오는 16일 부터 수국축제 개최

홍준원 기자

최종 기사입력 2023-06-07 14:00



도초도 환상의 정원 팽나무 10리길에 수국이 활짝 펴있다. 사진제공=신안군

신안군은 ‘환상의 정원(팽나무 10리길)’이 지난해 산림청에서 처음 시행한 모범도시숲 가로수 부문 인증을 받아 최근 산림청장 인증 현판을 도시숲내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.

모범도시숲은 ‘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모범적으로 조성 관리되고 있는 도시숲 등을 산림청장이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.

모범도시숲 가로수 부분의 ‘환상의 정원’은 수종 선정부터 식재, 사후 관리, 연계 행사 등 인증 심사기준을 모두 통과해 모범 도시숲으로 선정됐다.

특히, 도초에서 매년 개최되는 수국축제와 환상의 정원을 가꾸는 자원봉사단체 및 주민 참여 활동 등이 ‘모범도시숲’으로 선정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.

신안군 관계자는 “1섬 1테마 플로피아 섬 정원 및 숲길조성을 통해 모범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 총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신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,모범도시숲 인증을 받은 도초 환상의 정원(팽나무 10리길)에서는 오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일간 ‘배로 가는 섬 수국축제’를 개최하며 수국정원과 환상의 정원은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단위 면적(ha) 당 전국 최다 수국 식재 인증을 받은 바 있어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수국을 만날 수 있다.

신안=홍준원 기자 namdo6340@viva100.com
